# “나이들어 성찰 안하면 ‘꼰대’ 소리 들어요”

컬쳐 & 피플

문학평론가 번역가 황현산

## 내 ‘모국어’의 뿌리는 신안 비금도 체제에 저항하는 글쓰기가 문학 공부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어요

문학평론가이자 번역가인 황현산(69) 전 고려대 불문과 명예교수는 ‘문단의 조용필’이라는 애칭으로 불린다. 섬세한 통찰과 아름다운 사유의 문장들을 묶은 ‘밤이 선생이다’(2013년·난다)는 가왕(歌王) 조용필이 바운스를 발표했을 때 처럼 문인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문인들이 앞다퉈 SNS에서 글을 퍼날랐을 정도. 그를 최근 서울 성북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밤이 선생이다’에는 격조와 품격을 아우른 문장과 맵시있는 글이 그득하다. 한국어의 리듬과 운율, 어감을 살린 문장도 문장이거니와 ‘~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말할 수도 없다’는 등 독특한 어투는 시나브로 사색에 빠져들게 하는 사고(思考)의 장치로 작용한다.

황 교수가 쓰는 ‘모국어’는 신안 비금면에 뿌리를 두고 있다. 섬의 언어다. 성인이 된 후 “섬에서도 축구할 수 있느냐”는 농담을 줄곧 듣고 자랐지만 그에게 고향은 성스러운 곳이다. 목포에서 태어나 문태고를 졸업했고, 신안에서 초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면 그의 고향은 신안과 목포 두 곳이다.

“신안에는 섬이 가지고 있는 다도해 정서가 있어요. 섬 말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현력과 말은 문체를 익히는데 굉장한 도움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손꼽히는 오지 마을인 신안의 말을 터득했고, 세계적인 보편어인 불어를 배웠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어요.”

평생 문학을 쓰다듬고 보듬어온 그에게 문학은 무엇일까. 그의 문학관은 소박하게 말하자면 현실을 비추되 현재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 또한 보여줘야 한다는 입장에 가깝다.

“좋은 문학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항상 정치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과학책, 역사책에 쓸 수 없으나 문학으로 밖에 쓸 수 없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체제에 근본적으로 저항하는 글쓰기가 문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문학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은 지배체제에 저항하거나 같이 갈 때도 체제와 일정한 관계를 맺지요. 그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게 글쓰기죠.”

황 교수는 한국인의 애송시 ‘미라보 다리’라는 시를 쓴 기욤 아폴리네르 연구에 정통한 불문학자다. 그는 번역을 본업으로 여긴다. 기욤 아폴리네르나 말라르메의 시와 같은 난해한 작품을 세밀하게 분석하고 번역할 수 있는, 한국에서 유일한 불문학자로 알려져 있다. 문학비평가인 그는 황병승, 김이듬 등 난해한 시를 쓰는 ‘미래파’ 시인들을 옹호했다. 덕분에 시 보다는 ‘시적인 것’에 집착하는 ‘문창과 교수들’로부터 악의에 찬 공격을 받기도 했다.

“한국시의 태반은 모국어적 정서에 의지하고 있어요. 김소월의 시가 좋지만 한국적 정서가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번역되지 않을 뿐더러 번역되더라도 세계인들이 공감하는 보편적 가치를 갖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문학에는 세계적이고도 인간전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고민이 결여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현산 교수에게는 불행이었겠으나, 문학하는 후배들은 그의 좌절이 축복이리라. 시인을 꿈꾸었으나 허망하게도 대학 은사의 말 한 마디에 꿈을 접고 비평가로 돌아섰으니 말이다. 대학노트 한 권에 시를 가득 써 은사에게 보였다. 은사는 “시는 좋다. 쓰는 데 얼마나 걸리는가”, “짧게는 몇시간, 길게는 한 달도 걸립니다”(황현산). “그건 시간 낭비가 많다는 얘기 아닌가”(은사). 시 쓰는 게 비효율적이라는 말로 알아듣고 그만뒀다.

그는 지난 2010년 강단을 떠났지만 지금도 학문적 영역은 물론 다양한 부문을 공부하고 탐구하는 학자로 살고 있다. 호기심 많은 십대처럼. 노 학자에게는 공부와 학문은 어떤 의미일까. “잘 모른다”며 손사레를 치면서도 “정직해지는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공부할수록 정직하게 된다고 생각해요. 공부는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어요. 정직해지면 두려운 것도 없어져요. 공부를 하면서 거짓말 할 필요 없고 내가 아는 것 가지고도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현실을 굳이 왜곡하지 않아도 현실 자체가 충분히 감동적이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유명세 덕분에 그는 종종 청중들을 만난다. 이들이 던지는 대부분 질문은 “어떻게 하면 노후를 잘보낼 수 있을까”라고 한다. 그는 자신보다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무척 당황한다며 웃었다.

“독서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생각하고 성찰해야 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어느 정도 나이들면 생각을 다했다고 판단하죠. 그때부터 ‘꼰대질’이 시작되고 여러 사람을 피곤하게 해요.”

/서울=윤영기기자 penfoot@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뮤지컬 ‘지킬앤하이드’ 한국 무대 1천회 공연

## 11년만에…올 광주공연

뮤지컬 ‘지킬앤하이드’〈사진〉가 한국 무대에 오른 지 11년 만에 1000 회 공연을 기록한다.

제작사 오디뮤지컬컴퍼니는 뮤지컬 ‘지킬앤하이드’(프로듀서 신춘수, 연출 데이비드 스완)가 오는 15일 오후 2시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1000 회 공연을 달성한다고 10일 밝혔다.

국내 대극장 뮤지컬(1000석 이상)이 1000 회 공연을 돌파하는 것은 ‘명성황후’, ‘맘마미아’에 이어 세 번째다. 소극장 뮤지컬로는 ‘빨래’ ‘뮤직 인 마이 하트’ 등이 있다.

‘지킬앤하이드’는 1886년 출간된 영국 작가 로버트 스티븐슨의 소설 ‘지킬박사와 하이드씨의 이상한 사건’을 원작으로 한 뮤지컬로 1997년 브로드웨이에서 초연됐다.

한국에서는 2004년 7월 24일 처음 선보였고, 조승우의 열연 등에 힘입어 3주간의 짧은 공연이 ‘전회 매진’이라는 기록을 세운 이후 지금까지 거의 매년 무대에 오르고 있다. 현재 서울 블루스퀘어에서 공연중으로 오는 4월 5일까지 이어진다. 광주 공연도 예정돼 있다.

/연합뉴스

##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학술조사 보고서 4종 발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소장 이상준)가 고흥 야막 고분(전남 문화재자료 제218호),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전남 기념물 제84호), 나주 오량동 요지(사적 456호), 영암 갈곡리 고분 등 호남 문화권 주요 유적의 학술조사 성과를 담은 보고서 4종을 발간했다.

‘고흥 야막 고분 발굴조사 보고서’는 전남 서남해안에 위치한 고흥 야막 고분의 2011~2012년 학술조사 결과다. 고분 축조과정과 매장시설의 구조, 삼각형 철판을 이어붙인 갑옷과 투구, 화살촉 등 유물 사진이 수록돼 있다.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의 발굴 성과를 담은 보고서 ‘영암 옥야리 방대형 고분Ⅱ 발굴조사 보고서’에는 1차 보고서에 담기지 않았던 원통형 토기 파편, 새롭게 확인된 옹관묘(甕棺墓) 1기에 대한 조사내용 등이 담겼다.

또 호남지역 고분 축조와 관련한 비교연구에 활용할 수 있는 ‘영암 갈곡리 고분Ⅰ 발굴조사 보고서’, 현재까지 60여 기의 가마가 발견된 ‘나주 오량동 요지Ⅱ 발굴조사 보고서’도 함께 발간됐다. 이 보고서는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www.ncp.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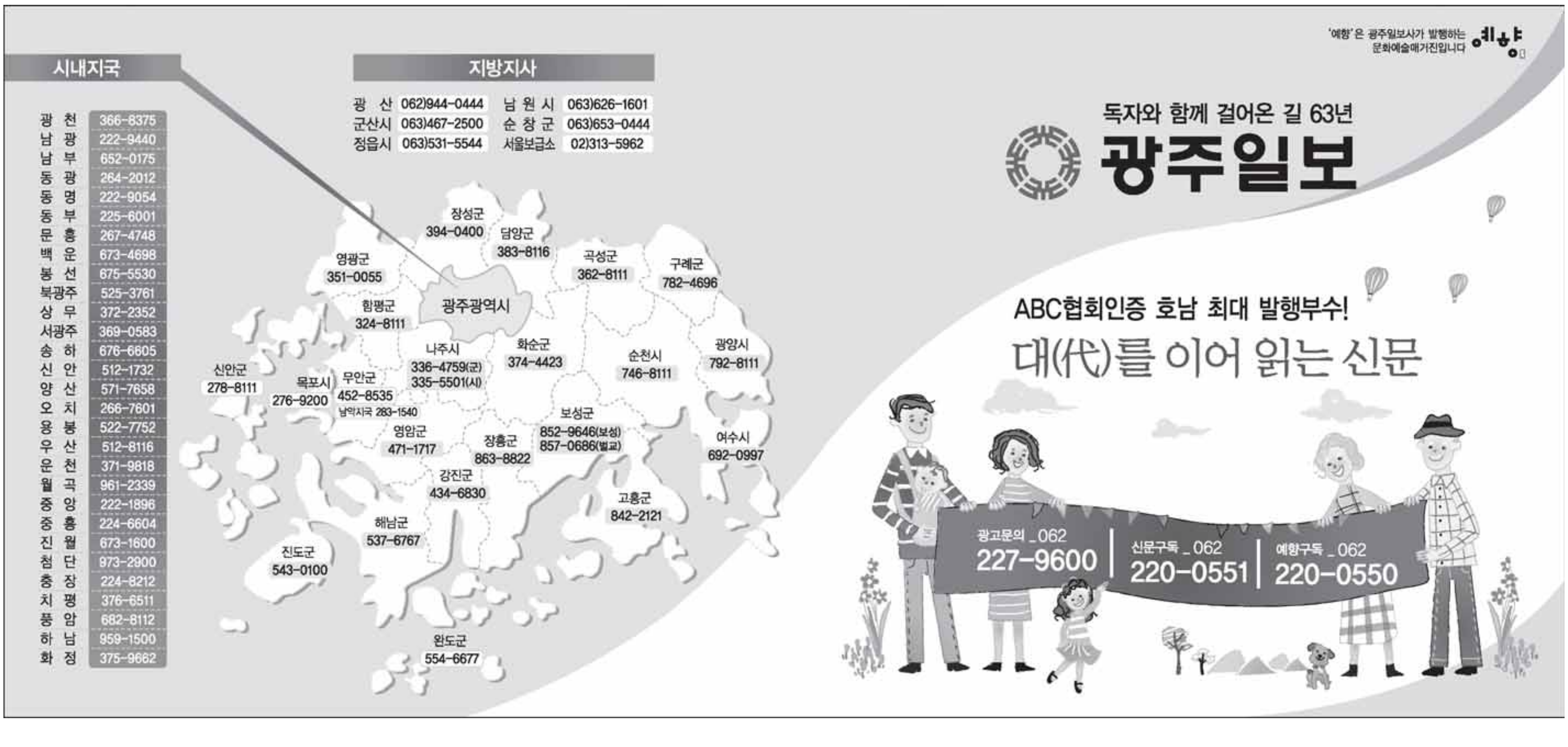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 순천대, 13·14일 ‘국가권력과 문화’ 학술대회

순천대 지리산권 문화연구원(원장 강성호)과 문화사학회(회장 김현식)는 13~14일 ‘국가권력과 문화’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가 권력이 사회의 문화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춰 다채로운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13일 순천대 70주년 기념관 대회의실에서는 주철희 순천대 특별 연구원과 이종수 순천대 교수가 각각 ‘한국의 여순사건과 조선조의 숭유억불정책’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예정이며 석화정 공군사관학교 교수의 ‘팽창주의, 반제국주의, 힘의 정치’, 김진희 경희사이버대 교수의 ‘뉴딜 문화정책과 공민적 국민주의의 형성’, 정대성 부산대 교수의 ‘독일의 68운동과 문화혁명’에 관한 논문 발표가 이어진다.

14일 구례에 있는 지리산권 문화연구원에서는 홍용진 고려대 교수의 ‘중세 말 프랑스 정치 풍자서-포벨 이야기’와 배혜정 부산대 교수의 ‘메리 아스텔의 결혼’에 관한 논문 발표가 있다. 문의 061-750-3194.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